

2025년도 제1호

교황청 재단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 KOREA



교황청 재단

사랑의 메⁺아리

이라크:

“ 내 영혼아,
오직 하느님을 향해
말없이 기다려라.
그분에게서
나의 희망이 오느니! ”

(시편 62,6)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 KOREA

발행 고통받는 교회 돕기 한국지부 ACN KOREA | 전화 02-796-6440

홈페이지 www.churchinneed.or.kr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80 가톨릭회관 337호

이메일 info@churchinneed.or.kr | 팩스 02-796-6439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004-459234 | 예금주 (사)고통받는교회돕기한국지부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최근에 한 후원자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아프리카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도움이 되고 있나요? ACN이 전하는 소식에 따르면, 계속되는 원조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는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데다가, 심지어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밑 빠진 독이 아닌가요? 우리의 헌신에 희망이 있더라도 합니까?” 이 말에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자신의 의지가 헛된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마음과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는 갈등이 뚜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ACN을 통해 거의 매일 보고 듣는 어려움을 설명하자, 곧장 그 후원자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프로젝트 협력자들과 ACN의 동료 직원들에게서 보고받은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들은 무수한 사람들의 기쁨과 희망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축 성당의 축성식, 공동체적인 교회 생활을 가능하게 해주는 본당의 새 교육관, 또한 사제가 더 많은 신자를 만나기 위해 오랫동안 염원했던 차량을 통해 말이죠. 그리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추방과 피난 상황에서도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돕고, 여성 수도자들이 국내 피난민들을 돌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등 저희는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꺼이 도움을 주시려는 여러분의 의지가 어떻게 기쁨과 희망과 삶을 선사하는지 저희는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물론 온갖 도움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의 상황이 더 악화하는 현실이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상황에서 도움에 대한 저희의 의지는 희망이

“ 사랑의 선물은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소중한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거의 없는 사람들에게 확신을 줍니다! 이들이 잊혀지지 않고, 이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경험이 이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의 선물은 물질적인 도움을 넘어 궁극적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도움을 받은 사람을 위한 소중한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회칙 <희망으로 구원된 우리(Spe Salvi)>에서 신자들이 고통을 넘어서게 만드는 ‘치유의 힘’에 대해 말합니다. 교황은 참된 희망은 고통을 피하거나 세상의 안전을 약속하는 데 있지 않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고통을 변모시키는 데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 희망은 세상의 기준에 따라 가늠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한 영원한 삶의 관점에서 가능 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주님 성탄 대축일 전야에 희년의 개막을 앞두고, 선포 칙서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Spes non confundit)>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를 위한 메시지입니다. 불확실성과 어려움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희망은 흔들리지 않는 기반이 되어, 믿는 이들이 온갖 고통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줍니다.

은총 가득한 희년! 2025년을 맞아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을 빌며 ACN 지도본부 안톤 레서 Anton Lester OP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2016년 4월 16일, 젊은 아일랜드 출신의 클레어 크로켓 수녀는 에콰도르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어머니 집의 종’ 수도원 건물이 무너지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2024년 11월 4일, 이 수도회의 동료 수도자들은 클레어 수녀의 시복 절차의 시작을 선언했습니다. 이 시작과 그 과정은 클레어 수녀의 성덕과 기쁨이 전 세계의 많은 젊은이에게 어떻게 영감을 주는지 증언들이 보여줍니다. 하느님을 찾고 자신의 성소를 발견하기 전, 클레어 수녀는 파티를 좋아하고 할리우드스타가 되기를 꿈꾸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에서 신앙은 거의 아무 역할을 하지 못했지요.

클레어 수녀는 자신의 성소에 대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하느님께 봉헌된 삶으로의 부르심은 너무나 큰 선물이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당황하게 만듭니다. 하느님은 가련한 영혼을 돌보시어 그 가련한 영혼이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 수 있게 하십니다.”

이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느님을 도울 수 있게 하시지요. 이 얼마나 놀라운 행위입니까. 하지만... 이것은 축복된 뜻밖의 행위입니다!”

클레어 수녀의 성소 여정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 받아들이라는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호소이기도 했습니다. 2005년 8월, 독일 쾰른에서 열린 세계 청년대회에서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삶 속에 받아들이는 사람은 삶을 자유롭고, 아름답고, 위대하게 만드는 그 어떤 것도 전혀 잃는 법이 없습니다. 그 무엇도 잃지 않습니다. 전혀! 오직 이 우정 안에서만 삶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오직 이 우정 안에서만 인간 존재의 위대한 잠재력이 진정으로 드러납니다. 오직 이 우정 안에서만 우리는 아름다움과 해방을 경험합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 선택하신 부르심에 우리 마음을 열라는 메시지입니다. ACN 수석대표 레지나 린치 Regina Lyn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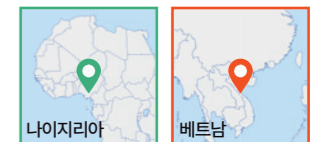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이지리아 북서부의 소코토 교구에는 12명의 도미니코회 여성 수도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위험한 지역이지만, 여성 수도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희망과 기쁨으로 사도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불안정함 속에서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보호는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그러나 최근까지 여성 수도자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본당 사목 사도직 활동을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하는데, 낡은 차가 계속 고장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길 한가운데에 아무 데나 무방비로 서 있는 여성 수도자들은 공격자들의 표적이 되기가 쉽습니다. 게다가 장마철에는 통행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도로 상태가 좋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성능이 좋은 차량을 위한 기부금 42,000,000원이 모였습니다. 에스터 수녀는 이런 글을 보내왔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과 소중한 후원자들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하느님께서 이 땅에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고, 언젠가 하느님 나라에서 귀한 상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졸업을 축하합니다!



신학 공부라는 말을 들으면 흔히 성직자만 떠올립니다. 그러나 신학 공부가 여성 수도자들에게도 중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종종 잊고 있습니다. 수도회에서 젊은 성소자 양성을 책임지고 있는 여성 수도자들에게는 특히 신학 공부가 중요합니다.

베트남의 M 수녀는 여러분의 도움 덕분에 신학 공부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M 수녀가 이런 글을 보내왔습니다. “제게 장학금을 보내주셔서 깊이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호의와 지원을 늘 기억하겠습니다. 이는 재정적인 후원뿐만 아니라, 더 열심히 공부해서 목표를 이루도록 제게 격려와 동기가 되었습니다. 제게 보내주신 여러분의 신뢰와 믿음은 몹시 소중했으며, 여러분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감사함을 느낍니다.”

M 수녀가 성공적으로 학업을 마친 것을 축하합니다!



건축 자재를 나르는 여성들

건축 현장에서 수고하는 신자들

우리도 이런 희생을 감수할 수 있습니까?

인도 동부 오디샤 주의 정글 한가운데 위치한 구드라파라의 본당 신자들은 몹시 가난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대한 사랑으로 이들은 놀라운 희생을 감수합니다...

밀림에서의 생활은 힘듭니다. 이곳 사람들은 수렵과 채집, 또는 전통적인 농업에 종사하며 살아갑니다. 코끼리들이 종종 마을로 들어와 오두막 안에 비축한 쌀을 먹으려고 오두막을 쓰러뜨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교회 활동에 참여하기도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멀리 떨어진 마을에 사는 신자들이 미사에 참석하기 위해 산과 시내, 가시덤불을 헤쳐 가며 15km를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 길의 일부는 트럭이 지나다니는 구역입니다. 여성과 소녀들은 종종 트럭 운전자들에게 성추행이나,

심지어 성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는 신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드리기 위해 나무 기둥과 대나무 깔개, 진흙으로 오두막을 짓고, 오두막 지붕은 풀로 덮어두었습니다. 그러나 이 허름한 오두막은 이후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4년 전부터 사람들은 더 견고한 성당을 지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계획을 위해 일주일에 하루, 시간을 내어 일합니다. 점토 벽돌을 만들고, 숲에서 나무를 가져오고, 심지어는 강철, 시멘트 및 기타 건축 자재를 사기 위해 돈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힘이 부치는 일입니다.

이들을 방문한 니란얀 수알 싱 주교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지친 얼굴, 밀림에서의 생존을 위한 투쟁, 그리고 이들이 수입 일부를 포기한 채 일한다는 사실에 감동하여 여러분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주교의 요청은 우리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우리 자신도 이런 희생을 감수할 수 있습니까?

씩씩한 신자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으려면, 성당 완공을 위해 19,000,000원이 필요합니다.

야외 땡벌에서

말리의 지역 대부분은 지하디스트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교 가정이 테러를 피해 수도 바마코로 피신하면서, 이곳에 새로운 빈민 지역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태양이 따갑게 내리쬐고, 기온은 40도가 넘어 무척 덥습니다. 교리교육을 위해 모인 청소년들은 야외 땡벌에 앉아 있습니다. 그늘도 없고, 위생시설이 갖춰진 곳도 없습니다. 상가레부구 구역에는 제대로 된 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든든한 영적·도덕적 기반을 제공하고, 가정이 새로운 삶을 꾸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가톨릭 본당에서는 교리교육, 글자 교육 및 사회 활동을 위한 시설을 짓고자 합니다.



말리의 그리스도인들!

이 난민 신자들이 실내에서 모임을 하기 위해서는 73,000,000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힘을 모아 주시겠습니까?

사랑의 시험



1. 사제가 되기를 원하는 미키타 수사



2. 모든 이를 위해 평화를 기도하는 아르툼 신부

아르툼은 러시아인이고, 미키타는 우크라이나인입니다. 두 사람은 **폴란드** 크라쿠프의 도미니코회 수도원에서 함께 지내는데, 이곳에서는 여러 동유럽 국가에서 온 젊은이들이 수도 양성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목표는 같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합니다.

첫 유기 서원을 마친 미키타 수사는 1년 전에 시작한 철학 공부를 즐거워합니다. 특히 라틴어를 좋아하는 그는 전쟁으로 크게 피해를 본 도시인 하르키우 출신입니다. 27세인 그는 도미니코 수도회에 입회하기 전에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학위를 받았습니다.

반면에 아르툼 신부는 이미 사제 서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전쟁으로 인해 현재 러시아로 돌아갈 수가 없자, 공부를 계속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제가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하느님 말씀, 그리고 사랑과 평화의 말씀을 더 잘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르툼의 사제 서품식에서 다미안 무스쿠스 보좌주교는 통과해야 할 ‘사랑의 시험’에 대해 말하며, 젊은 사제 수품 후보자들에게 권고했습니다. “어둠이 도무지 뚫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밤은 새벽과 함께 끝나며, 빛이 어둠을 이긴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어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두 젊은 도미니코회 수도자들은 교회 안에는 적이 없으며, 오직 형제들만 존재한다는 사실과 이 시대의 어둠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극복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올해 이들의 학업을 위해 2,400,000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들이 ‘사랑의 시험’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희망의 상징이자 등대

이라크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희망입니다. 젊은이들은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조국에 머무를 의미가 있을까?” 바샤르 와르다 대주교의 표현처럼, 아르빌 가톨릭대학교 (CUE)는 2015년부터 ‘희망의 상징이자 등대’ 역할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대부분인 학생들은 그리스도교 사회 교리에 기반한 훌륭한 교육을 받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젊은이들이 이라크에서 미래를 꿈꾸게 하고, 수년 동안 폭력에 물들고 수천 명의 그리스도인이 ISIS에 의해 쫓겨난 나라에서 사회적 결속을 다지는 일입니다.

ACN은 대부분 국내 피난민인 78명의 젊은 그리스도인에게 4년 동안 장학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연간 290,000,000원이 필요합니다. 이 금액으로 한 학생에게 일 년간 3,700,000원 정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라크의 젊은이들이 여러분의 도움을 기대해도 될까요?



이라크의 젊은이들은 이라크에 미래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도움 덕분에 이라크의 젊은이들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여성 수도자들은 아무런 도움의 손길도, 희망도 없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따라서 사도직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여성 수도자들에게 좋은 교육이 필요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 14,6)



사제직으로 가는 첫 단계: 독서직 수여

가난한 이들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

아이티의 수도 포르토프랭스에서는 무장 갱단이 주민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비참함과 혼란이며, 많은 사람이 굶주리고 영양실조에 걸린 어린이들은 종종 그냥 버려지기도 합니다.

'성 가밀로의 딸 수녀회' 수도자들은 이런 아이들 약 100명을 돌보는데, 그중 많은 어린이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성 수도자들은 궁핍한 가정과 병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E 수녀는 수도의 여러 지역과 외곽 마을을 다녀야 하는 위험한 소임을 맡았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미 몇몇 수도자들이 납치되었습니다. 그러나 48세인 이 수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불안전함은 하느님에 대한 나의 믿음을 사라지게 하지 않고 오히려 성장시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담대하게 따르는 사람들을 절대 버려두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확신합니다. 저는 날마다 제 성소에 기쁘게 응답하면서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젊은 아이티 여성들은 하느님과 가난한 이들을 섬기고자 합니다

이 수녀는 양성 교육자로서 수도원에 입회한 6명의 젊은 아이티 여성들에게도 이런 확신을 전달합니다. '성 가밀로의 딸 수녀회' 수도자들은 온갖 어려움과 위험 가운데서도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도와시는 하느님의 섭리에 전적으로 의탁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느님께서 종종 다른 사람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우리에게 젊은 수도자들의 양성과 수도회에 필요한 필수품 구매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올해 여성 수도자 한 명당 750,000원을 지원하는 데 도움을 주시겠습니까?

가장 가난한 지역인 인도 북동부에서도 여성 수도자들이 정성을 다해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이신 마리아 선교 수녀회' 수도자들은 가난한 마을을 찾아갑니다. 이들 마을은 밀림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도자들이 없다면 이들은 의료 지원도, 학교도, 장애인과 고아를 위한 도움도, 여성들을 위한 지원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 수도회에는 다양한 성소가 있습니다. 일부 여성 수도자들은 지도자 임무를 맡거나, 젊은 수도자들을 양성하기 위해 2년제 교육 과정을 이수합니다. 데이지 제이콥 수녀는 이런 글을 보내왔습니다. "과거 경험에 비추어볼 때, 특히 재능 있고 젊은 수도자들의 학업은 복잡한 세상 한가운데서 신앙을 굳건하게 하고, 우리 수도회의 고유한 정신과 카리스마를 실천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성 수도자 20명이 이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ACN은 올해 22,500,000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이티와 인도의 용기 있는 여성 수도자들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이들을 위한 '하느님 섭리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수도회에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공부하는 수도자들

성소가 성장하고 꽃피우는 곳

신학교를 뜻하는 영어 '세미너리(seminary)'는 라틴어에서 유래했으며 '못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소라는 여린 씨앗이 성장할 수 있는 곳이 신학교입니다. 이집트 수도 카이로의 교외 지역인 마디에는 이집트의 유일한 콥트-가톨릭 신학교가 있습니다. 현재 이곳에서는 청년 28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 몇몇이 자신의 성소를 이야기합니다.

나비트(29세)는 이미 청소년 때부터 교회에서 활동했습니다. "복사, 교리교사, 스카우트를 지낸 경험이 저의 사제 성소를 위한 씨앗이 되었습니다. 저는 내적으로 항상 하느님께 이끌렸고, 저를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는 속삭임을 마음속에서 들었으며, 제 마음 깊은 곳에서 그분을 따르라는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라미즈(23세)는 신학교에 입학하기 전, 2년 동안 의료 장비 서비스 기술자로 일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제 가족은 이미 어린 시절부터 제 마음과 영혼 깊이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심어 주었습니다. 저는 하느님을 사랑하며, 교회 안에 있는 걸 좋아합니다. 다른 어떤 곳에서도 이런 기쁨을 찾지 못합니다."

파디(28세)도 기쁨을 강조합니다. "내게 사제가 된다는



사제가 되기를 원하는 행복한 젊은이들

것은 하느님 나라를 지상에서 살아가는 기쁜 방식입니다."

엔타운(32세)은 신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수학을 전공했습니다. "저는 항상 삶의 의미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제게는 늘 이 대답만으로 충분했지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요한 14,6) 사제가 된다는 건 하느님 사랑과 삶의 참된 의미를 드러나게 해줍니다. 청소년들은 많은 질문을 하기 마련인데, 그들에게 세상이 의미가 있다는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사메(28세)는 어렸을 때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단순하고 거룩한 삶의 방식'을 존경했다고 떠올립니다. 그러나 청소년 시절에는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기를 꿈꾸었습니다. 오늘날 그의 목표는 오직 하나, '이집트에서 교회에 헌신하는 겸손한 사제이자 목자'입니다.

신학교 교장인 로매니 파이징 신부가 설명합니다.

"신학교의 사명은 여러 세대에 걸친 훌륭한 사제 양성을 통해 교회에서 신앙의 불꽃을 계속 타오르게 하는 데 있습니다. 사제는 경건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사제의 인격은 온전하게 형성되어야 합니다."

실제 경험을 쌓기 위한 본당 파견이 예비 사제 양성 교육에 속합니다. 그외에 다른 활동과 행사들도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신학교 자체 차량이 없어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낭비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중교통은 불확실하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14인승 미니버스의 구매에 52,000,000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도움을 주시겠습니까?



배를 타고 오는 사제

노아나미토 본당은 콜롬비아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에 속하는 구아피 대목구에 위치합니다. 이 본당에 속한 마을 44곳은 두 개의 강으로 나뉘어 있어 뱃길로만 이를 수 있습니다.

하이로 팔로미노 몬타뇨 신부가 처음 배를 조종했을 때는 전복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하느님에 대한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배로 마을을 이동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폭우, 홍수, 모기, 뱀은 신부가 맞닥뜨리는 여러 어려움 중 일부일 뿐입니다. 이보다 더 위험한 것은 이 지역을 불안하게 만드는 무장 단체들입니다. 하이로 신부는 목숨을 걸고 사제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당 소속 주민들은 원주민과 아프리카계 미국인 들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가난으로 인해 마약 재배로 생활하는데, 이는 폭력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이 본당에는 10년 동안 사제가 없었습니다. 2024년 3월부터 이곳에서 사목을 맡은 하이로 신부가 말합니다. “본당에서의 새로운 시작은 쉽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성찬 전례나 다른 성사들도 집행되지 않았습니 다. 마침내 사제가 와서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은 그동안 소홀한 대접과 폭력으로 고통받았던 사람들에게는 매우 감동적인 일이었습니다. 사제 부임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었습니다. 이들이 제게 말합니다. ‘신부님, 교회가

저희를 잊은 줄 알았습니다.’, ‘저희가 다시 미사에 참석한 이후로 마을이 달라졌습니다.’”

이들이 처한 상황은 어렵습니다. 본당 건물조차 저녁에만 몇 시간 전기가 들어올 뿐입니다. 그러나 44세의 사제가 고백합니다.

“저는 저의 소임을 사랑합니다. 복음 선포를 위해 제 삶을 바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이 사람들을 섬기고 싶습니다. 제가 이곳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기쁨이 되고, 또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제가 그리스도의 도구가 될 수 있어서 무척 행복합니다. 저는 기도와 사랑의 신비한 힘에서만 아니라,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지금까지 사제는 마을을 방문하기 위해 배를 빌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장기적으로 보면 비용이 아주 많이 듭니다.

그래서 강가의 많은 마을을 더 자주 방문하기 위해서는 모터가 달린 보트가 시급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15,000,000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본당 공동체, 특히 어려운 지역의 본당이 오랫동안 사제 없이 지내지 않도록 돕고자 합니다. 노아나미토 본당의 예는 사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자들이 ‘교회로부터 잊힌’ 느낌을 받지 않도록 콜롬비아의 여러 신학교에서 사제 양성을 정기적으로 지원합니다.



강가마을 하이로 신부들 머리가 기다리는 사람들



1.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한 교리교육 2. 드디어 다시 열린 첫영성체!

집집마다 전해지는 복음

로올라의 이냐시오와 같은 위대한 성인들은 책을 통해 회개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예기치 않게 마음에 감동을 주는 종교 매체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 인터넷 동영상일 수 있습니다. ACN은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다양한 교회 미디어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팬데믹 동안에는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 어느 정도 집으로 찾아오는 교회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평상시에도 비가 오는 날, 잠 못 이루는 밤, 또는 몸이 아플 때 방송을 보면서 뜻하지 않게 위로와 응답, 믿음을 위한 소중한 자극을 발견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교회를 전혀 접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조차 이런 방식으로 ‘우연히’ 하느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종종 들려옵니다. “우울하고 절망적이었는데 인터넷에서 이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또는 “사실 아무 의욕이 없어서 이리저리 프로그램을 돌리다가 어느 신부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하시는 걸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저로서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죠.”

다른 종교에서는 집중적으로 미디어를 이용합니다. 특히 **중남미**는 자금력이 풍부한 종파들이 거대 방송국을 운영하면서 전문적으로 운영되는 방송 프로그램을 수많은 가정에 24시간 송출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도 현대 미디어를 통해 복음을 선포하고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의 가정에 직접 찾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역 가톨릭 방송국이 모두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단을 갖춘 건 아닌 데다, 품질도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SIPCATV 네트워크는 고품질의 가톨릭 TV 프로그램과 다큐멘타리를 제작해서 중남미의 교회 채널뿐만 아니라 미국의 스페인어 채널에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개국 이상에서 수백만 명의 시청자가 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ACN은 이 중요한 사업에 매년 105,000,000원 이상을 지원합니다.

중동에는 이슬람교 채널은 많지만, 그리스도교 채널은 거의 없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멀고 접근이 어려운 지역, 또는 테러리스트가 도로를 봉쇄한 지역에서도 가톨릭 라디오 전파가 전달됩니다. 그리고 공산주의가 종식된 지 35년이 지난 **동유럽**에서는 여전히 많은 사람이 하느님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하면서도, 교회에 나가거나 사제와 대화하는 것은 주저합니다.

여러분의 도움 덕분에 전 세계 수많은 이들의 가정, 병원, 교도소, 그리고 외딴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 종종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이 미디어 사도직 지원에 여러분도 계속 도움을 주시겠습니까?



탄자니아: 라디오로 전해지는 복음



콩고민주공화국: 교회 임무를 수행하는 현대 미디어



페루: 라디오 방송 제작



안데스산맥의 신자들에게 전파되는 라디오 시쿠아니



이들 할머니 덕분에 소련 체제에서도 살아남은 신앙



1990년: 오조노에 성지 건립을 돕는 나이든 여성들



미사 참례 후, 예브게니 주교와 베라 수녀의 할머니 (왼쪽)와 지인



젊은 시절의 브로니슬라와 (사진 왼쪽 위), 수용소에서 사용한 기도서와 목주



“주님께서 당신 백성에게 평화로 강복하시리라.” (시편 29:11)



피신하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머무는 톰베 트릴 주교

2025년 하반기: 희망의 순례자들



할머니들이 없었다면 믿음은 사라졌을 겁니다.

“나의 유일한 보호는 성체입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로마 14:8)

“저는 할머니로부터 기도하는 법을 배웠어요.” 또는 “제게 하느님에 대해 말해준 사람은 할머니가 유일했어요.” 구소련 공화국의 사제, 수도자, 일반 신자들이 신앙의 여정에 관해 이야기할 때 종종 듣게 되는 말입니다. 오늘날 이들 ‘바부슈카’(babushka, 러시아인 할머니)는 대부분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조용하고 겸손한 삶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출신의 예브게니 진코프스키 주교의 쌍둥이 여동생 베라는 수도자입니다. 이 두 사람의 신앙은 물론, 성소 또한 성모님을 열렬히 공경하는 할머니 덕분입니다. 오조노에에 거주하는 이 할머니는 구부정한 몸으로 매일 걸어서 이곳의 성모 성지를 방문합니다. 이 성모 성지는 공산주의의 몰락 이후인 1990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이 성지의 성모님은 훨씬 오래전부터 기억되며 공경받으셨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신자들은 극심한 굶주림이 끝나게 해달라고 성모님께 기도했습니다. 1941년 3월 25일,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온이 갑자기 상승하면서 눈이 빠르게 녹은 것입니다. 그러자 호수 수면 위로 물고기가 가득 떠올랐고, 사람들의 굶주림도 끝이 났습니다.

리투아니아 출신인 브로니슬라와도 한평생 목주기도를

바쳤습니다. 젊었을 때 그녀는 ‘반혁명 활동’ 혐의로 수용소 투옥과 강제 노동을 선고받았습니다. 머나먼 시베리아로의 여정은 끝이 없어 보였습니다. 특히 목주가 없다는 사실은 가톨릭 신자에게 마음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발명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듯이, 그녀는 빵부스러기를 재와 섞어서 자그마한 구슬을 만들고, 침대보에서 조심스럽게 뽑아낸 실로 구슬들을 엮었습니다. 또한 십자가도 만들었습니다. 비누를 십자가 모양으로 파서 빵 덩어리를 그 안에 눌러 넣었습니다. 이렇게 만든 목주를 옷단에 숨기고 기도하는 동안, 다른 수감자들에게도 몰래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수백만 명이 죽어가던 악명 높은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브로니슬라와는 수용소에서 멀지 않은 마가단에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녀의 증언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박해 속에서도 신자들과 함께 공동묘지에서 몰래 기도하고, 비밀리에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고, 마침내 다시 사제가 와서 미사를 거행할 날을 준비한 것도 할머니들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박해가 끝나기를 수십 년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할머니들의 조용하면서도 용기 있고 진실한 증언이 없었다면, 이 암울했던 시대에 믿음의 불꽃은 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를 빌려 그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자 합니다.

엘 오베이드의 유난 톰베 트릴 주교가 전해온 이야기입니다. “여기 **수단**에는 오직 성체 덕분에 살아남은 주교가 있다는 사실을 독자들에게 전해주세요.” 전쟁 중에서도 목숨을 걸고 자신의 양 떼 곁을 지키는 용기 있는 목자는 성체에서 온 힘을 얻습니다.

그날 이후로 주교는 하루에 네 차례 성체 조배를 하면서, 신자들과 함께 하느님을 찬미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며 그분께 우리의 눈물과 기쁨을 바치면서 그분의 보호를 간구합니다. 우리는 성체를 통해 평화가 올 때까지 살아남을 거라고 믿습니다.”

파괴된 주교관은 거의 2년 동안 전기가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포위된 도시에는 먹을 것이 거의 없고, 물 한 방울도 소중합니다. 주교는 사목 방문 때 사막을 건너느라 몇 주가 걸리는데도 트럭을 타고 다닙니다. 밤이 되면 맨바닥에서 잠을 자고, 매번 위험을 겪습니다. 지난 11월에는 가까스로 공격에서 살아남았고, 전쟁 초기에는 무장한 사람로부터 약탈을 당하고 상처도 입었습니다. 심지어는 주교 반지까지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신자들을 도우려는 주교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피신하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머물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제 도움이 필요합니다. 위험한 상황이지만, 하느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걸 믿습니다. 성경에 이런 글귀가 있지요.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로마 14:8) 우리에게 해야 할 사명이 있는 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할 용기를 주십니다.”

수단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주교에게는 더 큰 관심사가 있습니다. 주교가 모든 신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성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흠송하라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도 주님만이 유일한 보호이며 유일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주교 방문을 기뻐하는 엘 오베이드의 어린이들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5년도 ACN 시순·부활 캠페인

✚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은 2025년 사순 시기에 고통받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하고자 합니다. 십자가의 길 책자를 무료로 배포합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고통받는 전세계 그리스도인들 지원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합니다.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004-459234

예금주 (사)고통받는교회돕기한국지부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시험받고 있습니다. 박해받는 신자들은 예수님께 대한 그들의 믿음을 시험받습니다. 하지만 박해받지 않는 신자들은 그들이 간직한 예수님께 대한 사랑으로 시험받고 있습니다.”

- ACN 설립자 베렌프리트 판 슈트라텐 신부



2025 십자가의 길 신청하기

신청기간 2월 1일 ~ 4월 19일

관련문의 02-796-6440, 010-7475-6440



2025 시순·부활 캠페인
일어보기